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전용배



공부와 운동병행이라는 시대적 경향으로 인해 최근 달라진 체육계의 현상 중에 하나가 운동선수 출신들의 고시합격이다. 물론 아직은 그 수가 4~5명 수준에 불과하지만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중·고 시절 운동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최하위권의 성적을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고시도 합격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를 보여주었다.

합격한 이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공학이었다면 애초에 불가능했지만, 사회과학영역이라 '체력'을 믿고 도전했다고 한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외우기만 하면 된다는 뜻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고시합격이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사법고시 합격생 중에서도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최고 엘리트집단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판사와 검사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검찰과 법원의 논쟁을 보면서,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다. 적어도 엘리트 집단끼의

논쟁이라면 보다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검찰과 법원의 마찰 과정에서 전혀 상관없는 '우리 법 연구회' 문제는 뜬금없이 튀어나오고 있다. 미네르바, 첨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 야간 촛불집회, 노회찬 진보

검찰과 법원, 누가 반성해야 하나

신당 대표, 전교조 시국선언, 강기갑 민노당 대표, 피디수첩 사건은 모두 우리법 연구회와 무관한 판사들이 선고했다.

법원이 어떤 집단인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가치에 충실했던 대표적인 집단이다. 왜냐하면 사법부는 기준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기 때문이다. 나름대로 진보적이라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미국 또한 예외없이 사법부는 보수적이다. 게다가 판사는 독립적이긴 하지만 판단의 준거는 기본적으로 판례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과거의 관행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다. 일반 판사는 선고한 7건이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답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 때문이다. 논쟁의 핵심은 기소내용에 대한 법리적 문제가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는 집단을 만나 사냥하는 것이 21C 선진인류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물론 검찰은 '정치적 판결'이라 주장하면서 법원에 불만을 토로했지, '우리법 연구회'를 지칭한 적도 없고, 공격적 적도 없다. 진짜 정치적으로 이용한 집단은 '우리

겠는가. 이번 검찰과 법원의 논쟁에서 자기반성이 필요한 집단은 검찰이다.

"수십 년 검찰역사 속에서, 국민에게 긍정적으로 각인된 검사를 배출한 경험이 없는 검찰. 기소독점이라는 절대 권력을 소유했으면서도, 그 칼을 휘두르는 백성과 집단에게만 휘둘러온 검찰, 도쿄지검 특수부가 집권 민주당의 실세인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의 정치 자금을 수사 중인데 비해, 죽은 권력에만 칼을 들이대는 검찰. '거악'과 싸우기는 커녕 '거악'과 결탁한 검찰" 이것이란 필자의 주장이 아니라. 검사 출신의 김용철 변호사가 새로 출간한 책에서 밝힌, 오늘날 검찰의 자화상이다.

검사도 인간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찌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국민의 공복(公僕)이라면, 최소한 역사를 두려워 할 줄도 알아야 한다. 검찰조직에서 질서, 충성, 의리, 복종 같은 단어가 유의미한 가치로 계속 인정받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러한 가치는 필자가 몸담고 있는 체육계에서도 퇴출된 용어이다. 검찰 것발에 그려진 칼과 대나무가 진정한 검찰의 상징이 되기를 고대한다.

〈동명대 체육학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김신곤



응급 출동한 이 지역 여자 구급대원이 술 취한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져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불상사가 발생했다. 그것도 새해가 밝은 첫날에, 여자 대원의 얼굴 손상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한 탓인지 소방방재청장이 직접 서둘러 내려와 대원을 위로했다.

술 취한 사람에게 우리 사회는 언제까지 얼마나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가. 전통적인 농경사회는 솔래집이 푸짐하

미국 유학 간 젊은이들이 음주 후 소란을 피우다 정신병원에 입원해 생고생을 치른 얘기를 우리는 듣고 있다. 음주 후 추태는 이제는 사회범죄나 정신병으로 더이상 아울ож을 것이다. 주취자가 난동을 부리면 파출소나 일반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갈 것이 아니라, 선진국처럼 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정신병원이나 공립요양소 등을 지정해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행패를 물리적으로 제압할 인력도 필

술 취한 환자 대처법

고, 술 취한 행동에 관대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예로부터 힘든 농사일 중에도 그렇고, 주수 뒤 끝이나 명절, 제사 등 각종 잔치와 모임에 술은 필수 물이었다.

술은 많이 들면 취하고, 취하면 이상을 잊고 판단이 흐려진다. 따라서 누구나 술 취하고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술이 가장 악한 미약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많다.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도 바뀌고 생활 문화도 바뀌었다. 음주운전이 본인뿐만 아니라 대형교통사고의 주범으로, 제삼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어 음주운전에는 각별히 혹독해졌다.

그런데도 음주운전은 좀처럼 줄지 않고 애꿎은 단속 경찰들만 피해가 늘고 있는 현실이다.

선진 사회로 진입하는 이제, 술 취한 사람의 개인적인 비이성적 행태도 가정 폭력처럼 우리 사회가 준엄이 다스릴 때가 오지 않았나 싶다.

모임이나 길거리에서의 시비는 물론, 심지어 경찰서에 끌려와서도 부리는 온갖 소란과 행패를 이제 더 이상 방관해 서는 안 된다.

오래전의 독일에 간 광부들이나 근래

요하다. 술 취한 사람은 저온증으로 심장마비가 잘 오고, 간경변이나 간암을 동반할 수 있고, 상해 등 병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의료시설이 없는 곳에 허로 방지할 수는 없다. 밤샘 지낸 경찰서 보호실에서 가끔 낭패를 당하는 이유이다.

술에 취하면 으레 119에 전화하는 상습범, 술만 취하면 안방 드나들듯 응급실 찾아 몇대로 구는 이를, 파출소에서 "우리의 세금 받은 주제에, 민중의 지팡이" 운운하며 온갖 난동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격리하고 '치료' 받아야 한다.

이들이 끼치는 피해는 본인이나 주위뿐 아니라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이를 때문에 시간을 더듬어 치료받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말이다.

잔을 통해 인생을 논하고 행복을 논하고 설움을 씻고 울분을 토하는 것을 누가 뒤따라 하리오. 자기가 마시고 자기 흥에 겨운 것에 누가 시비하겠는가? 그러나 사회질서 유지를 속에서 개인적 기호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설립된 미소금융은 담보가 없거나 저신용상태로 은행 등 금융회사 이

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과 운영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정치권과의 부적절한 연결 악순환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좋지 못한 인식을 심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명암이 상존하고 있다.

해외여행을 가신 분들은 저와 같은 느낌을 받았겠지만 외국 공항 입구 도로

대기업에 격려와 박수를

변마다 삼성의 대형 간판이 첫눈에 들어와 반가움과 자부심을 넘어 애국심마저 느꼈다.

또한, 삼성전자가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매출이 많은 큰 기업이 되었고 영국왕실에서 사용하는 품목으로 삼성냉장고를 구입했다는 소문을 듣고 유럽의 많은 귀족들이 앞 뒤로 우리 지역 광수공장에서 생산되는 삼성냉장고를 구입한다는 사실은 광주시민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필자가 전에 대표로 있던 남해화학에서 비료수출관계로 베트남 하노이를 처음 방문한 적이 있는데 과거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라는 부담을 가지고 출국했지만 도착한 하노이 공항 내부에서 LG, SK의 대형 간판이 우리나라를 홍보하고 있어 무척 반가웠다.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의 일익을 담당하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고, 먼저 진출한 기업들이 다져 놓은 기반 위에서 외국회사들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국내 비료 수출물량을 세배로 늘린 반사 이익을 얻었다.

올해는 중국, 베트남 등으로 이전된 우리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되돌아 와서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해 주는 한 해가 되기 바란다.

〈미소금융 광주점 이사장〉

최근 호남을 기반으로 성장한 금호에 대한 워크아웃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 안타깝다.

"금호가 지역민들에게 해 준 것이 뭐가 있는가?"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호남의 마지막 대기업인 금호를 살려 달라는 호소문은 광주·전남·전북 지도층 3만 명이 서명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번에 지역민들이 힘들어 풀쳐 금호 살리기에 앞장서주고 금호는 각고의 노력으로 거듭나서 건설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 지역민들의 사랑에 다시 보답해주기 바란다.

서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들에게 더 잘 할 수 있도록 성원과 따뜻한 사랑을 줄 것을 제안한다. 경제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업이 힘을 내서 열심히 경쟁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고 국민들도 자국에서 생산된 기업 제품을 먼저 구입하고 사랑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올해는 중국, 베트남 등으로 이전된 우리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되돌아 와서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해 주는 한 해가 되기 바란다.

〈미소금융 광주점 이사장〉

숙제 사이트 찾는 학생들 세태 한심

얼마 전 아이들이 숙제를 한다며 컴퓨터방에 모여 있었다. 잠시 후 청소를 하기 위해 컴퓨터를 하는 아이들 방에 들어가 봤더니 너석들이 찾아서 쓰고 있는 인터넷 페이지는 독서감상문이 서비스되는 사이트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무슨 숙제냐고 묻자 예상했던 대로 독서감상문을 써야 하는데 책을 다 읽기 어려워 자기네들이 읽어야 하는 책의 독서감상문이 무료로 제공되는 사이트를 여기저기 뒤지고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닌가. 당장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아이들은 알듯 모

를 듯 하는 표정이었지만 정말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체험에 의미가 큰 기행문은 물론 일기마

저도 인터넷 사이트에 의존하는 학생들의

세태가 기막히고 안타까울 뿐이다. 방학숙

제는 학기에 할 수 없었던 정서를 함양하고

경험을 제공해 주기 위한 것인 만큼 학부모

가 함께 자녀의 방학숙제 수행을 관리하면서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력이 필요할 듯하다.

▲민경화·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시설

조선대 정상화 흔드는 사학분쟁조정위

이 사사건건 학교 운영에 발목을 잡는다면 학생들의 수업거부 등 제2의 학내 분규도 우려돼 걱정이 앞선다.

사실 22년여 끌어온 조선대 정상화 문제는 교과부의 책임이 크다. 비록 임시(관선)이나 체제였지만 교수와 학생, 학부모, 동문 등이 나서 조선대의 학내 사태를 털어내고 안정 속에 발전을 지속해왔음에도 정상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의가 체제를 들고 나온 것은 교과부다.

정상화라는 것은 대학이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사학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의 판단 문제다. 비로소 털겨났던 옛 제단에 '탈환'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게 과연 대학 정상화인가.

굳이 주인에게 둘러주다면 조선대가 타대학과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조선대가 시·도민의 출연에 의해 설립됐다는 사실은 여러 정황과 근거자료로 나타나고 있다.

교과부와 사분위의 혼명한 처신을 바란다.

조선대와 사분위의 이러한 충돌 양상은 대학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추가 이사 선임이 원료되며 이사회가 소집돼야 하는데, 교수와 학생, 동문들이 이를 좌시하겠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 사분위가 이사회에 관여하고 옛 제단 측 이사를

이갈 저지에 놓인 것이다.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은 중기청과 광주시에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인쇄처인 조폐공사의 일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즉흥적인 탁상행정이 그 원인이라는 얘기다. 연말·연초가 되면 조폐공사에 물량이 밀리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인쇄를 맡겨야 했다. 한마디로 한심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재래시장은 온누리 상품권을 지난달 말까지 발행하기로 하고 전국상인 연합회에 20억원어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상품권 인쇄를 담당하고 있는 조폐공사에 물량이 몰리면서 오는 10월께나 인쇄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불시기 등을 감안할 때 올해 광주 재래시장에서의 상품권 사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봄다.

광주시는 온누리 상품권을 지난달 말까지 발행하기로 하고 전국상인 연합회에 20억원어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상품권 인쇄를 담당하고 있는 조폐공사에 물량이 몰리면서 오는 10월께나 인쇄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불시기 등을 감안할 때 올해 광주 재래시장에서의 상품권 사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봄다.

광주시는 온누리 상품권을 온누리 상품권을 판매하기로 하고 공공기관을 비롯한 한·중 기업, 대학 등을 구입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관계기관의 늑장대처로 수포로 둘

아갈 저지에 놓인 것이다.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은 중기청과 광주시에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인쇄처인 조폐공사의 일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즉흥적인 탁상행정이 그 원인이라는 얘기다. 연말·연초가 되면 조폐공사에 물량이 밀리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인쇄를 맡겨야 했다. 한마디로 한심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재래시장은 대형 유통업체에 둘려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수많은 영세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등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 등이 대체적으로 '재래시장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거창한 구호나 계획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이고 과부에 와닿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 중기청과 광주시의 이번 주민구역 늑장대처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설탕 가격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통제는 사탕수수 농장주와 아들 카스트로가 쿠바혁명을 일으키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기 도했다.

요즘 글로벌 시장은 설탕값 급등으로 흥행하다. 브라질 등의 기상이변으로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국제 원당(原糖) 가격이 파운드 당 30.4센트로 치솟았다. 29년 만의 최고치다. 유럽연합은 이때도 싸워나온 브라질 등 주요생산국은 WTO 규정 위반이라고 반발, 갈등이 커